『영미연구』
제68집 (2026): 45-71
http://doi.org/10.25093/ibas.2026.68.45

이탈리아 미래주의와 기계문명에 대한 모더니스트적 불안: E. M. 포스터와 D. H. 로렌스의 경우* **

오 은 영
단독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영국의 모더니즘 작가인 E. M. 포스터와 D. H. 로렌스가 이탈리아 미래주의의 기계문명에 대한 찬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909년에 F. T. 마리네티는 속도, 산업화, 기계의 파괴적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미래주의 선언문」을 발표한다. 같은 해에 포스터는 자기 소설 중에서 유일하게 SF 장르에 속하는 단편 「기계가 멈추다」를 출판한다. 본 논문은 포스터의 단편 「기계가 멈추다」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로렌스의 편지와 에세이 등을 비교해 읽어봄으로써 20세기 초반에 혼재했던 기계문명에 대한 모더니스트 작가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당대 아

* 이 논문은 202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포스터는 '블룸즈베리 그룹'(Bloomsbury Group)의 일원으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와 자주 왕래하는 관계였으나, 로렌스와의 교류는 드물었다. 그러나 로렌스가 1930년 3월에 사망했을 당시 『더 리스너』(*The Listener*)에 보낸 추도사에서 포스터는 로렌스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가 중 한 명"(343)이었음을 역설한다. 로렌스가 사망했을 당시 평단과 독자들은 그의 작품들, 특히 1928년에 출판된 로렌스의 마지막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Lady Chatterley's Lover*)을 두고 외설적이라며 비난하는 분위기였다. 죽음 이후에도 수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 휩싸여 있던 로렌스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했던 사람이 바로 포스터였고, 포스터의 기고문은 당시 영국 문단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로렌스를 '외설 작가'에서 '예술적 거장'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방가르드 운동의 하나로 유행했던 이탈리아 미래주의의 기계문명에 대한 낙관적 비전에 대해 두 작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기계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가 어떻게 당시의 파시즘과 결탁하게 되었는지, 나아가 기계문명에 의해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잃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주의는 기술이 흔히 통용되는 인식과 달리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당대의 이데올로기적 가치와 결합해 다양성과 개인의 고유성을 파괴할 수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다. 본 논문은 미래주의의 기계적 합리성과 속도, 효율성의 논리가 인간의 신체적 경험과 개별성을 소거해 온 과정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포스터와 로렌스의 불안과 비판적 반응이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탐구한다.

주제어: 이탈리아 미래주의, 기계문명, 모더니스트적 불안, 기술, 「기계가 멈추다」, E. M. 포스터, D. H. 로렌스

1. 들어가며

이탈리아 미래주의(Italian Futurism)는 '과거를 불태우고, 속도와 기계를 찬양하자'는 모토 아래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전위적인 예술 및 사회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09년 2월, 이탈리아 시인 F. T. 마리네티(F. T. Marinetti)가 프랑스의 유명 신문 「르 피가로」(*Le Figaro*)에 「미래주의 선언문」("Manifesto of Futurism")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마리네티는 당시 이탈리아가 로마 제국, 르네상스 등 과거의 유물에만 갇혀 있다고 비판하며, 현대적인 산업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리네티는 「미래주의 선언문」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경주용 자동차가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상'보다 더 아름답다"("Founding" 51)고 선언하며, 기계가 가진 속도의 미학을 새로운 시대의 절대적인 예술적 가치로 추앙한다. 그는 "위험, 에너지, 무모함"(51)을 찬양하는 동시에, 이탈리아를 짓누르고 있는 박물관, 도서관, 아카데미를 '무덤'으로 규

정하고 이를 파괴하여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과격하게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투쟁에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역설하며 전쟁을 "세상의 유일한 위생학"(51)이라고 정의한다. 간단히 말해서, 마리네티의 미래주의는 애국심과 파괴적인 제스처를 옹호하고, 여성(성)과 감상주의를 경멸하며, 폭력과 투쟁을 통해 세상을 정화하고 역동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미래주의 선언문」이 프랑스 신문에 실렸던 1909년은 E. M. 포스터(E. M. Forster)가 자기 소설 중에서 유일하게 SF 장르에 속하는 단편 「기계가 멈추다」("The Machine Stops")를 출판했던 해이기도 하다. 두 텍스트 중에서 「미래주의 선언문」이 정확하게는 8개월 정도 먼저 출판되었다. 포스터가 「기계가 멈추다」를 구상하고 집필했던 때는 1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비교적 평온해 보이는 시기였지만, 동시에 기계문명과 인간적인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이기도 했다.[1] 당시에 포스터가 느꼈던 불안감은 「기계가 멈추다」의 결말에서 '완벽한' 지하 도시가 붕괴되기 시작하자 "문명이라는 긴 날이 저물고 있다"(35)고 느끼는 바쉬티의 내면을 통해 아이러니하게 표현된다. "기계적 아름다움"(mechanical beauty, "Multiplied" 89)을 찬미했던 마리네티의 글과 "아름다운 나체 인간"(beautiful naked man, 36)을 꿈꾸었던 포스터의 단편은 20세기 초반이 근대 기술 문명에 대한 불안과 낙관이 팽팽하게 대치하던 시기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보자면, 포스터의 단편 「기계가 멈추다」는 우연의 산물이라기보다, 당시 유럽을 휩쓸던 '기계 숭배'와 '속도 예찬'이라는 시대정신(Zeitgeist)에 대한 정면 반박이자 문학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나중에 소설이 출판된 지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포스터가 했던 언급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단편 모음집 서문에서 포스터는 「기계가 멈추다」가 동시대인이었던 H. G. 웰즈(H. G. Wells)의 "초기 기술 유토피아에 대한 반작용"(vii-viii)으로 쓰여졌다고 밝힌다. 폴 마치-러셀(Paul March-Russell)은 포스터의 이러한 언급으로 인해 「기계가 멈추다」가 SF 문학 연구에 있어서 주요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이후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조지 오웰(George Orwell), 예브게니 자먀틴(Yevgeny Zamyatin)으로 이어지는 디스토피아 소설의 선구적 작품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56-57).

포스터의 「기계가 멈추다」가 마리네티식의 기계와 속도에 대한 숭배를 불길하고 섬뜩하게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이지만, 흥미롭게도 이탈리아 미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스터의 글이 아니라 D. H. 로렌스(D. H. Lawrence)의 편지와 에세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렌스는 『아들과 연인』(*Sons and Lovers,* 1913), 『채털리 부인의 연인』(*Lady Chatterley's Lover,* 1928) 등에서 인간의 육체와 성적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가로 유명하지만, 당대 그 누구보다 문명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작가였다. 특히 1914년경, 그가 이탈리아에 체류하며 마리네티의 글을 접했을 때 쓴 편지들과 에세이 「토머스 하디 연구」("Study of Thomas Hardy")에는 이에 대한 생생한 반응이 남아 있다.[2] 사실 포스터의 초기 소설 『천사들도 발 딛기 두려워하는 곳』(*Where Angels Fear To Tread,* 1905)과 『전망 좋은 방』(*A Room with a View*, 1908)이나 로렌스의 소설 『길 잃은 소녀』(*The Lost Girl*, 1920) 등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다.[3] 두 작가의 초기 소설들에서 이탈리아는 인습적인 영국 사회와는 다르게 생명력이 억압되지 않은 장소로 형상화된다. 바살로(Peter Vassallo)가 지적하듯이, 두 작가는 "이탈리아 특유의 즉흥성"(the spontaneity of Italy, 126)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으며, 이렇게 형상화된 작품 속 이탈리아는 당시 영국인들이 보기에는 "해로운 매력"(pernicious charm, 125)을 뿜어내는 장소였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인습적이고 억압적인 영국 사회와 정반대의 지점에 있다고 믿어졌던 이탈리아의 또 다른 이면에는 마리네티의 미래주의와 산업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고 있었다. 본 논문은 포스터의 단편 「기계가 멈추다」와 이탈리아 미래주의와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포스터뿐만 아니라 동시대 작가였던 로렌스도 미래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드러냄으로써 당시 모더니즘 작가들 사이에서 기계문명에 대한 낙관과 불안이 어떻게 공존하고 교차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기계(기술)문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사람마다 매우 다를 수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륄(Jacques Ellul)의 『기술사회』(*The Technological Society*, 1964)는 현대 기술 문명 비판의 고전으로 꼽히는 저서이다. 엘륄이 말하는 기

술(technique)은 단순히 기계(machine)가 아니다. 그는 기술을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도달될 수 있고 절대적 효율성을 가진 방법들의 총체라고 강조한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술은 사실 기계화된 세계의 의식 그 자체"(6)라는 그의 말은 인간이 의식을 통해 삶을 구성하듯이 '기술'이 현대 기술사회에서 의식의 역할을 할 만큼 핵심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공장의 기계뿐만 아니라 경영 기법, 교육 시스템, 정치 선전 등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는 모든 시스템이 기술에 해당한다. 그는 인간이 기계(기술)와 맺는 관계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했는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기술(technique)이 오직 기계(machine)로만 대변되던 시절에는 '인간**과** 기계'를 구분해 말하는 것이 가능했다. 당시 기계는 인간과 분리된 외부의 대상일 뿐이었다. [···] 그러나 기술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 기술은 더 이상 인간의 외부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본질 그 자체가 된다. 기술은 더 이상 인간과 마주 보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통합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인간을 흡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술은 기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대 사회에서 매우 자명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기술이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6)

엘륄에 따르면, 현대 기술 문명은 기계가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던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 기계(기술)가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내면과 정신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기계와 인간은 '완전한 통합'(total integration)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1964년에 출판된 책에서 엘륄은 현대 문명에서 기술은 이미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자율성'을 획득하고 있고, '효율성'이라는 단일한 가치 아래에 움직이며, '자기 증식'을 하는 특징을 띤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4)]

기계문명이 인간적인 가치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은 사실 모더니스트 작가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백여 년 전에 이미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시대의 징후」("Signs of Times," 1829)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대가 "외적으로나 내적인 의미에 있어서나 기계 시대"(64)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20세기 초에

출판된 포스터의 단편 「기계가 멈추다」와 로렌스의 소설 『연애하는 여인들』(*Women in Love*, 1920)이나 에세이를 읽어보면 이 두 작가의 기계문명에 대한 불안은 극에 달한 듯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낭만주의에 '자연'이 그러했듯, 모더니즘에는 '신체'가 그러하다. 사실상 상실되었기에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이다"(24)라는 크리스틴 밴 보히멘(Christine Van Boheemen)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이 문장은 20세기 초반 포스터나 로렌스 같은 모더니스트들이 왜 그렇게까지 인간의 육체에 집착했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터의 「기계가 멈추다」에서 인간 신체에 대한 집착은 강렬하고도 불길한 이미지들로 묘사된다. 포스터는 인간의 신체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신체적 경험이 인간성 유지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강조한다.

도미닉 헤드(Dominic Head)는 포스터의 단편들이 단편소설로 유명했던 당대 모더니스트 작가들, 가령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캐서린 맨스필드(Katherine Mansfield)의 단편들에 비해 "대수롭지 않다"(insubstantial, 77)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포스터의 단편은 단편소설의 대가로 여겨지는 맨스필드의 기교적 복잡함보다는 우화적인 경향을 띤 로렌스의 작품들과 더 유사하다고 평한다(82). 한편 마르친 테레셰프스키(Marcin Tereszewski)는 「기계가 멈추다」가 1990년대까지 거의 비평적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이중적인 이유, 즉 포스터의 보다 '진지한' 장편소설들과는 성격이 너무 다르고, 거기다 SF 장르에 대한 비평적 낙인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음을 지적한다(226). 그러나 무엇보다 「기계가 멈추다」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의 하나는 1997년에 출판된 마르시아 시베리(Marcia Seabury)의 논문이다. 논문 서두에서 시베리는 "『1984』와 같은 전체주의적 디스토피아보다는, 개인용 컴퓨터 앞에 앉아 만족해하는 개인이 등장하는 포스터의 디스토피아가 오늘날 더 임박한 현실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기계가 멈추다」가 "새롭게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61).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독자는 포스터의 소설이 그 어떤 디스토피아 소설들보다 훨씬 더 21세기의 현실과 닮아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1909년에 출판된 소설에서 2020년의 코로나 현실과 매우 유사한 세계

를 그려낸 포스터의 단편이 놀라운 만큼이나 이러한 점을 간파한 시베리의 논평이 코로나 훨씬 이전에 나왔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이외에도 포스터의 단편은 공간과 장소의 관점, 21세기의 사이버문화와의 관련성, 디스토피아 소설의 전통과의 관련 속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은 포스터의 단편 「기계가 멈추다」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로렌스의 편지와 에세이 등을 비교해 읽어봄으로써 20세기 초반에 혼재했던 기계문명에 대한 모더니스트 작가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당대 아방가르드 운동의 하나로 유행했던 이탈리아 미래주의의 기계문명에 대한 낙관적 비전에 대해 두 작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기계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가 어떻게 당시의 파시즘과 결탁하게 되었는지, 나아가 기계문명에 의해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잃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탈리아 미래주의에 대한 로렌스의 반응

1912년 9월부터 1914년 6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로렌스는 이탈리아에 머물렀고,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았던 로렌스는 당시 마리네티를 비롯한 미래주의자들의 글에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4년에 쓴 편지들과 「토머스 하디 연구」에서 로렌스는 미래주의자들에 대해 강렬한 매혹과 비판이 뒤섞인 양가적 감정을 드러낸다. 미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담겨 있는 중요한 기록은 1914년 6월 5일자 에드워드 가넷(Edward Garnette)에게 보낸 편지로 로렌스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문헌 중 하나이다. 편지에서 로렌스는 친구이자 편집자인 가넷에게 마리네티의 시와 「미래주의 선언문」을 읽은 소감을 전하면서 마리네티의 글에서 자신이 찾던 어떤 부분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19세기 빅토리아 사회의 전통과 가치에 숨 막혀 하던 로렌스는 사회적 의식(ego)의 틀에 갇힌 소설 속 인물들이 그 틀을 깨고 비인간적, 무의식적, 물질적 차원을 확보할 방법들을 찾아왔고, 그 단초를 마리네티의 글에서 본 것이다.[5] 다음은 편지의 주요 내용이다.

> 나를 매료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인 의지입니다. 그것을 생리학이라 불러도 좋고, 마리네티처럼 '물질의 생리학'(physiology of matter)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나는 여성이 무엇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는—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느낌은—그다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은 그것을 느낄 '자아'(ego)'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직 상관하는 것은 그 여성이 무엇인가(what she is) 하는 점입니다. 그 단어의 용례에 따라 비인간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녀가 무엇인가 하는 점 말입니다. 즉, 인간적인 관념에 따라 그녀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미래주의자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간적 현상을 찾는 대신, 인간 존재 안에서 발견되는 물리학적 현상만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독하게도 멍청합니다. [···] 당신은 내 소설의 인물에서 '오래되고 안정된 자아'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78)

여기서 로렌스는 미래주의의 '파괴적' 성격에 환호한다. 그는 마리네티의 글에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이고 고리타분한 소설 작법을 벗어날 가능성을 보았다. 이 편지에서 로렌스는 마리네티를 언급하면서 소설 『무지개』(*The Rainbow*)의 인물들이 그 이전의 초기 소설들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지 설명한다. 19세기 전통 소설에서 인물들은 일관된 성격과 도덕적 자아를 가졌으나 로렌스는 이를 거부하고,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비인간적'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다. 다시 말해, 로렌스의 초기 소설들이 빅토리아 조의 리얼리즘 소설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면, 『무지개』 이후에는 모더니즘 전통에 더 가까운 인물과 문체가 로렌스 소설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렇듯 강력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로렌스와 마리네티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물질의 생리학"이란 개념을 통해 마리네티가 인간을 기계나 물리적 입자처럼 보려 했다면, 로렌스는 이를 비판하며 인간 특유의 생명력과 생기에 집중한다.

가넷에게 보낸 편지보다 3일 전에 쓴 A. W. 맥클라우드(A. W. Macleod)에게 보낸 편지(1914년 6월 2일)에서 로렌스는 가넷에게 보낸 편지와는 다른 맥락에서 미래주의를 평가한다.[6] 이 편지에서도 미래주의에 대한 로렌스의 평가는 양면적이다. 무엇보

다 로렌스가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미래주의자들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지적이기만 하다는 것과 이들이 생각하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로렌스는 그들을 좋아하지만, 믿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 그들은 완전히 남성적이고, 지적이며, 과학적인 노선을 따라 전진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직관조차 지적이고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의 예술에 관한 단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것이 예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지적이고 [...] 거대한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 속한 감상주의와 전통에 대한 노예적 집착, 그리고 죽어버린 정신에 대한 반란이긴 합니다. (280)

특히 여성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미래주의자들과 달리 로렌스는 같은 편지에서 여성적인 원칙과 남성적인 원칙이 균형 있게 결합하여야만 예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술의 원천을 다시 찾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일한 길은, 예술을 남성과 여성의 공동 작업으로 만드는 것뿐입니다"(280). 이러한 생각은 같은 시기에 쓰여진 「토머스 하디 연구」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1914년에 쓰여진 「토머스 하디 연구」는 로렌스의 철학이 집대성된 에세이라는 평가를 받는 글이다. 이 에세이는 단순히 소설가 토마스 하디의 작품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로렌스 자신의 예술관과 생명 철학을 쏟아낸 글이다. 로렌스는 정신과 지식을 위주로 한 '남성적' 원리와 감정과 감각을 중심으로 한 '여성적' 원리가 완벽한 균형(equilibrium)을 이루어서 이 두 힘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술과 삶이 완성된다고 주장한다.[7] 로렌스가 하디의 작품을 비평하며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 같은 개념을 가져온 이유는, 하디의 인물들이 이 두 의지 사이의 균형을 잡지 못해서 비극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넷과 맥클라우드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시기에 나온 이 에세이에서 그는 미래주의를 다시 한번 언급한다. 로렌스는 미래주의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과학적" 태도이며, "남성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으로부터 이탈"(464)하는 방식이며, 결국 남녀 원

리의 완전한 결합(consummation)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로렌스가 보기에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중요한데, 미래주의는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결국 생명을 꽃피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의 기계문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속도와 기계만을 숭배했던 미래주의자들과 달리, 예술가로서 포스터와 로렌스 모두 육체와 그에 기반한 직접경험이 점차 사라지는 것에 대해 향수 어린 눈길을 보낸다. 포스터의 「기계가 멈추다」에서 "순수 정신"(pure mentality, Seegert 37)을 대변하는 바쉬티와 '벌거벗은 몸'을 대변하는 쿠노의 대립은 로렌스가 평생 작품을 통해 강조해 왔던 "신경-두뇌적 자아"(nerve-brain self)와 "혈적 자아"(blood self)의 대립과 유사하다.[8] 로렌스는 인간이 온전하게 살아있으려면 이 두 의식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하지만, 산업화의 급격한 팽창으로 그 균형이 깨졌다고 진단한다. 즉, 이성과 논리를 강조하는 정신이 인간의 원시적 생명력과 본능을 억압하는 사태가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라고 보았다. 「노팅엄과 광산지역」("Nottingham and Mining Countryside," 1929)은 로렌스가 죽기 직전 자신의 고향인 노팅엄셔의 풍경과 산업화로 인해 변화하기 전후의 광산 공동체 모습을 회상하며 쓴 글이다. 로렌스 특유의 감각적 묘사가 두드러지는 이 글은 도시 문명이나 부르주아 가치에 물든 "인색하고 속 좁은 부인들"(mean and narrow housewives, 140)과 달리 기계화 이전 광산 노동자들 사이의 원초적이고 깊은 유대감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지하 갱도에서 몸을 부딪치면서 일하는 남성들 사이의 신체적 접촉을 두 번이나 "벌거벗은"(naked)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이 흥미롭다.

> 사람들은 거의 전적으로 본능에 의지해 살았고, 내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도 몰랐다. 그리고 탄광은 사람을 기계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버티 시스템(하도급 채굴 방식)' 아래에서 광부들은 일종의 친밀한 공동체로서 지하에서 일했다. 그들은 사실상 *서로의 알몸을 다 알 정도로* 매우 가깝게 지냈으며, 묘하리만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갱내 '작업장'의 어둠과 지하라는 고립된 공간, 그리고 끊임없이 도사리는 위험은 사람들 사이의 신체적, 본능적, 직관적인 접촉을 고도로 발달시켰다. 그것은 거의 서로 맞닿아 있는 것만큼이나 가깝고, 매우 실질적이며 강력한 접촉이었다. 이러한 신체적 인식과 친

> 밀한 일체감은 지하 탄광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나타났다. [···] 광부들이 지상의 빛 속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은 눈을 깜빡였다. 그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흐름을 (지상의 방식에 맞춰) 바꾸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산 특유의 그 묘하고 어두운 친밀함, 즉 *벌거벗은 듯한 종류의 접촉을* 지상으로 그대로 가지고 올라왔다. (135-36; 필자 강조)

로렌스의 글에서 '벌거벗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광부들이 덥고 좁은 지하 갱도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서로의 몸을 부딪치며 일했던 실제 환경을 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나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가식이나 꾸밈이 없는 인간 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유대를 의미한다. 교육받고, 격식을 차리고, 돈을 계산하는 지상의 삶이 '옷을 입은'(clothed) 접촉이라면, 지하 탄광에서의 삶은 '벌거벗은'(naked) 접촉인 셈이다.

포스터의 「기계가 멈추다」에서 쿠노가 지상으로 올라가기 직전 과거의 인류를 상상하면서 바쉬티에게 하는 말 속에서도 똑같은 비유가 나타난다. "인류가 존재했던 거 같은데, 옷을 입지 않고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류가 벌거벗은 채로 존재했던 거 같아요"(19). 그러나 포스터가 기술 문명을 '옷'이라는 메타포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시거트는 매우 "부적절한"(ill-fitting, 41) 비유라고 비판한다. 기술은 옷처럼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은 인간의 세계관을 "장식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우리 세계관 그 자체에 서서히 스며들어 도처에 편재하는 어떤 것"(Seegert 41)에 가깝다. 기술 문명을 '옷'에 비유하거나 '벌거벗은 몸'을 강조하는 경향은 포스터와 로렌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모더니스트로서 로렌스와 포스터가 얼마나 육체적 접촉에 기반한, 즉 원초적인 유대감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싶어 했는지 드러내는 동시에, 기계문명에 대한 두 작가의 불안이 인간과 기계(기술), 혹은 자연과 문명 사이의 대립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포스터의 「기계가 멈추다」: 미래주의의 완벽한 구현과 파국

포스터는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휴머니즘, 개인주의를 중시했던 작가였다. 「기계가 멈추다」에서 기계에 의해 모든 다양성과 개인의 고유성이 상실되는 경험은 이후 1930년대에 출현할 파시즘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포스터는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무렵에 출판된 에세이 「내가 믿는 것」("What I believe," 1938)에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비판을 허락한다는 점에서"(78) 두 번의 환호를 보낼 만하다고 말한다. 만세 삼창처럼 절대적인 숭배는 신이나 국왕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현실적인 제도들에 대해서는 두 번의 환호를 할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제도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영웅 숭배(hero-worship)는 위험한 악이고, 민주주의의 사소한 장점 중의 하나는 그러한 광신을 부추기거나 소위 '위대한 인물'(the Great Man)이라 불리는 통제 불능의 시민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 아니, 나는 위대한 인물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 주변에 획일성이라는 황량한 사막을 만들어 내며, 종종 세상을 피로 물들이기도 한다"(80). 마리네티의 무솔리니 숭배는 포스터가 비판했던 '영웅 숭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글은 미래주의나 파시즘이 숭배하는 독재자들이 현실적으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정치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포스터의 믿음이 담겨 있는 글이다. 「기계가 멈추다」는 파시즘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쓰여진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주요 관심은 기계(기술) 자체에 있다기보다, 고도의 기술 발전이 인간의 탈신체화와 동시에 진행될 때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나'에 대한 작가의 상상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마리네티가 「미래주의 선언문」을 출판했던 1909년은 자동차가 막 대중화되기 시작한 현대 기술 문명의 초입이었다면, 포스터의 「기계가 멈추다」의 배경이 되는 미래사회는 마리네티가 찬양하는 기술 유토피아 사회가 완벽하게 구현된 세계라는 차이점이 있다. 전자가 인간과 기계 사이의 완벽한 통합을 '열망'하던 시기였다면, 후자는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해 낸 사회인 셈이다. 우선 현대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계

가 멈추다」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포스터의 소설에서 인간은 지하 세계의 벌집 같은 육각형의 독방에 격리된 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식, 침대, 의복, 음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기계"(The Machine)의 보살핌을 받는다. 이 세계에서 신체적인 접촉이나 직접적인 경험은 야만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사람들은 오직 둥근 "원형 판"(the round plate)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며 '간접적인 아이디어'만을 주고받는 비대면의 삶을 영위한다.

소설은 기계문명에 완벽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어머니 바쉬티(Vashti)와, 기계에 의존하는 삶에 회의를 느끼는 아들 쿠노(Kuno)의 대립으로 시작된다. 기계를 신처럼 숭배하며 안락함에 젖어 있던 바쉬티와 달리, 쿠노는 자기 신체를 단련하고 기계의 허락 없이 지상으로의 탈출을 감행한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방으로 직접 방문할 것을 요청하여, 자신이 몰래 지표면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 여전히 생명체가 존재하고 숨쉴 수 있는 공기가 있음을 목격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바쉬티는 아들의 행동을 불경스럽게 여기며 그의 말을 무시한다. 다시 지하로 끌려온 쿠노는 어머니에게 '기계가 멈추고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남기지만, 바쉬티는 이를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하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시간이 흐르며 쿠노의 경고는 현실이 되기 시작하고, 결국 끔찍한 정적과 함께 기계가 완전히 멈춰 선다. 생명 유지 장치가 정지하자 지하 도시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하고, 스스로 생존할 능력을 잃은 인류는 공포 속에 죽어간다. 마지막 순간에 쿠노는 지상에 숨어 사는 "집 없는 사람들"(Homeless)이 살아남아 기계에 종속되지 않은 새로운 인류 문명을 시작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고 바쉬티와 함께 최후를 맞는다.

포스터의 소설 속에는 1909년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든 첨단 기술들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남반구에 사는 바쉬티가 북반구에 사는 쿠노를 방문하기 위해 비행선을 타고 아시아 상공을 날아가는 장면이 나온다.[9] 당시의 기술 발전 정도로 보았을 때 비행선보다 신기한 것은 바쉬티가 방 안에 앉아서 모든 것을 버튼으로 해결하는 모습이다. 교육이나 대화 모두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원형 판"으로 생긴 기계 장치를 통해 해결한다. 바쉬티는 원형 판을 통해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자기 방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만나는 일은 없다. 2020년 코로나 시절을 상기시키는 비접촉과 비대면의 일상이 백 년 전에 쓰여진 소설에서 놀라울 만큼 비슷하게 재현되어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바쉬티의 방은 비첨이 말한 유토피아 사회와 매우 닮아있다. "여기서 유토피아란 정체되어 있고, 엄격히 통제되며, 완전히 질서 정연한, 한마디로 '완벽한' 사회를 모델로 한 가상의 체제를 의미한다"(Beauchamp 53). 많은 디스토피아 소설에서 그렇듯이, 「기계가 멈추다」의 유토피아 사회는 역설적으로 디스토피아 사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대립 항으로 보기 어렵다. 바쉬티의 방은 마리네티 같은 "기술 예찬론자"(technophile)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토피아적 공간이지만, 포스터 같은 "기술 비관론자"(technophobe)의 관점에서는 디스토피아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SF문학, 특히 디스토피아 소설을 이해할 때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계가 멈추다」가 드러내는 이분법적 구도와 관련하여 에밀리 존슨(Emilie Jonsson)은 포스터가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현대 문명에 대한 그의 비전이 "심각한 한계"(174)를 지녔다고 지적한다. "기계에 대한 포스터의 적대감은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진화적 요소, 즉 도구를 사용해 온 기질을 배제해 버린다. 전원적 이상과 모더니티 사이의 대비는 양쪽 모두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즉, 기계 장치가 배제된 전원적 이상과, 기계 장치가 직접경험과 거짓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모더니티라는 오해 말이다"(Jonsson, 175). 존슨의 글과 같은 맥락에서 기술과 인간 육체와의 접점을 탐구하는 앨프 시거트(Alf Seegert)의 글도 참조해 볼 만하다. 시거트는 「기계가 멈추다」에서 쿠노가 주장하는 "아름다운 나체 인간"(36)에 대한 화자의 옹호나 기술이 매개되지 않는 몸에 대한 향수 모두 "문제적"(Seegert 33)이라고 본다. "만약 육체 또한 그저 하나의 매개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육체적 연결 방식이 모터나 버튼, 비디오 화면에 의해 매개되는 상호작용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모든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든 매개되어야만 한다면, 한 종류의 인터페이스를 다른 것보다 '더 본질적(authentic)'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기나 한 것인가?"(Seegert 33) 시거트가

보기에 신체적 매개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바쉬티나 기술의 매개를 부정하면서 '벌거벗은 몸'을 이상화하는 쿠노 모두 결국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 신유물론과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 익숙한 현대 비평가들에게 포스터의 소설에 나타나는 기계와 인간의 대립 구도는 다소 도식적인 한계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바쉬티와 쿠노 사이의 '선명한' 이분법은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로 볼 필요가 있다. 포스터가 포착하고자 한 핵심은 미래주의가 열망하는 기계와 인간의 전면적 통합이 곧 인간성의 상실로 귀결될 수 있다는 근원적 '불안'이다. 「기계가 멈추다」는 미래주의적 이상을 극단까지 밀고 나간 결과를 가시화함으로써 그 내재적 모순을 비판적으로 폭로한다. 결국 작가는 이러한 비판적 목적을 위해 기계와 인간의 대립 구도를 우화적으로 과장하여 형상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쿠노의 '벌거벗은 몸'에 대한 열망과는 정반대로 소설 속의 기술 유토피아 사회에서 바쉬티의 몸은 "포대기로 감싼 살덩어리"(3)처럼 몸의 윤곽이 무너지면서 인간의 일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감각 경험이 실종된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필요한 버튼을 누르면서 생활한다. 몸을 움직일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만날 일도 없다. 바쉬티는 직접경험이나 접촉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표시하며 '아이디어'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바쉬티가 비행선을 타고 쿠노에게 가는 여행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도 "비행선 안에서는 아이디어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포스터 소설 속의 사회는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과잉을 특징으로 하며 사람들은 끝없이 아이디어에 집착한다. 심지어 그 사회의 가장 뛰어난 강연자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직접적 아이디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만 사랑과 공포가 만들어 낸 물리적 인상일 뿐이며, 이처럼 조잡한 기초 위에 어떻게 철학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의 아이디어는 간접적이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열 배로 간접적이면 더욱 좋다"(27).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과잉은 동전의 양면처럼 직접경험의 멸종과 신체적 감각의 퇴화와 맞물려 진행된다. 이는 마리네티가 「미래주의 선언문」에서 "시간과 공간은 어제 사망했다. 우리는 이미 절대 속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속도'를 창조해 냈기 때문"(51)이라고 하는 주장과 유사

하다. 마리네티의 주장은, 소설 속 강연자처럼,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구체적 경험을 직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이 인간의 제일 중요한 존재 조건임을 부정한다. 완벽하게 구현된 기계 사회에 사는 쿠노는 이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가 공간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걸 어머니도 알잖아요. 사람들은 ‘공간이 소멸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소멸시킨 건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죠”(17). 소설은 쿠노를 통해 완벽한 자동기술 사회에서 인간의 구체적, 감각적 경험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으로 대체되는 것이 인간성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경험과 빈곤」(“Experience and Poverty”)은 “직접경험에 대한 공포”(9)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아이디어들의 과잉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 글에서 벤야민은 정보와 아이디어의 과잉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진짜 경험과 무엇이 다른지 지적한다.

> 기술의 엄청난 발전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빈곤이 인류에게 닥쳐왔다. 그리고 이 빈곤의 이면에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아니 오히려 그들을 완전히 집어삼켜 버린 아이디어들—점성술의 부활과 요가의 지혜,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수상술(손금), 채식주의와 영지주의, 스콜라 철학 그리고 심령주의로부터 생겨난 아이디어들—의 억압적인 풍요가 자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부활이 아니라, 단지 죽은 것에 전기를 흘려 넣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732)

여기서 벤야민이 말하는 빈곤은 ‘진짜’ 경험이 사라진 상태를 뜻한다.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에게 직접경험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이론과 정보와 아이디어의 홍수에 파묻히게 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벤야민은 아이디어의 ‘억압적인’ 풍요라고 표현한다. 이 정보들이 왜 억압적인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틈도 없이, 외부의 정보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쳐버리기(swamped) 때문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보고 듣지만, 정작 나의 ‘고유한’ 경험은 없는 상태이다. 이것이 바로 벤야민이 말한 '풍요 속의 빈곤'이다. 우리는 기술 덕분에 너무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지만, 그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정작 인간다운 깊은 경험은 할 수 없게 되었다. 미래주의자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사상이 풍요로워지고 인간은 강력해질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벤야민은 기술 과잉이 우리를 정보의 홍수에 빠뜨려 익사시킬 뿐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벤야민은 "새로운 종류의 야만"(a new kind of barbarism, 732)이 출현했다고도 표현한다.

1930년대에 이미 벤야민은 직접경험과 분리된 문화, 대부분의 경험이 감각적 구체성을 잃고 정보와 '아이디어'의 홍수에 빠진 문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다. 벤야민은 사람들이 사람이든 문화든 모든 걸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고'(devoured) 나서 그것들에 너무 질린 나머지 "오히려 (직접)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734)할 거라고 보았다. 이는 포스터 소설에서 묘사된 것처럼 기술 유토피아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기계'(the Machine)에 의탁하고 직접경험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인간이 신체적 직접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개성은 점차 사라지고, 따라서 차이와 다양성도 자취를 감춘다. 기계 사회의 이러한 특징은 1930년대 유럽에 출현한 파시즘의 특징과도 유사하다. 파시즘은 개별 인간을 지우고 인간을 정치적 의도와 수단으로 도구화하면서 개인은 정치화된 대중으로 변모한다.

앤 보울러(Anne Bowler)에 따르면, 미래주의자들은 당시 젊은이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선동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다. 또한 1919년에 마리네티는 밀라노에서 사회주의 신문사 '아반티'(Avanti) 사무실 방화를 주도했고, 무솔리니와 함께 중앙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번째 파시스트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763). 그렇다면 기계와 속도에 대한 미래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숭배가 어떻게 파시즘과 결탁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을까? 처음부터 미래주의자들의 이론적 경향에는 파괴와 폭력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보통 창조를 위한 파괴는 로렌스의 경우처럼 매우 생산적일 수 있지만, 미래주의자들은 역사를 부정하면서 '파괴를 위한 파괴'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 예술가나 철학자들이 다양한 요소의 공존과 균형을 주장하는 데 비해, 이들은 남성적, 기계적 원리만을 강조함으로써 미래주의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을 내재하고 있었다. 이는 비첨이 지적하듯이, 디스토피아

작가들이 기술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전체주의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55). 기술은 일반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탈리아 미래주의자들에게 기술은 중립적인 가치가 아니었다. 보울러는 미래주의자들에게 기술이란 사회가 가치와 용도를 투영하는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그릇"이 아니고, 오히려 "속도, 파괴, 그리고 광란의 격변 혹은 폭력이라는 고유한 가치들을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었다"(774)고 지적한다.

1911년에 출판된 「증강된 인간과 기계의 통치」("Multiplied Man and The Reign of The Machine")라는 글에서 마리네티는 다음과 같이 인간과 기계의 통합을 주장한다. "우리는 인간과 기계의 즉각적이고 필연적인 통합(identification)에 대비해야 하며, [···] 둘 사이의 직관, 리듬, 본능, 그리고 금속적 규율의 지속적인 상호 교환을 촉진하고 완성해야 한다"(90). 마리네티는 인간과 기술 사이의 완전한 통합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애무하듯 부드러운 기름칠 아래, 관능적인 희열로 자주 달아오르던 이 아름다운 강철 기계"(90)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심지어 기계를 성애화의 대상으로까지 떠받든다. 이는 「기계가 멈추다」에서 바쉬티의 기계에 대한 숭배가 종교적 환희에 가깝게 묘사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방안을 한 번 둘러보고는, 반쯤은 부끄럽고, 반쯤은 기쁜 얼굴로 "오, 기계여! 오, 기계여!"라고 중얼거리며 그 책을 입술에 갖다 댔다. 그리고 그녀는 책에 세 번 입을 맞췄고, 세 번 머리를 숙였으며, 세 번 순응의 황홀감을 느꼈다"(8). 바쉬티가 황홀하게 입을 맞추는 책은 『기계의 서』(*The Book of the Machine*)로서 그 안에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다. 『기계의 서』에 대한 숭배는 그 사회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계'(The Machine)에 대한 숭배에 다름 아니다.

엘륄은 현대 기술사회가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가장 비이성적이고 영적인 영역인 '황홀경(Ecstasy)'마저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황홀경 현상(Ecstatic phenomena)이 최고조로 발달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류의 새로운 종교

> 적 삶이 다름 아닌 기술(Technique)에 종속되었음을 나타낸다. 과거에는 기술과 종교가 서로 대립하며 전혀 다른 두 개의 체계를 대표한다고 믿었다. [···]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극도로 단순한 관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황홀경은 기술 세계에 종속되어 있으며, 기술의 하인 노릇을 하고 있다. (156)

이러한 기술 유토피아 사회의 특징은 과학과 기술은 '합리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상식적인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드러낸다. 가치 중립적인 듯 보이는 과학과 기술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가치와 긴밀히 결합하기도 한다. 「기계가 멈추다」는 매우 합리적인 듯 보이는 기술사회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바쉬티의 태도를 통해 보여준다. 소설에서 기계가 신을 대체하는 장면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바꿔놓는다. 즉 인간이 기계(기술)를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를 넘어, 인간이 인간성을 완전히 버리고 이를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첨이 지적했듯이, "기술이 초래할 가장 큰 위협은 단순히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의 정신(ethos)을 너무나 완벽하게 내면화한 나머지, 스스로 기계가 되는 것을 최고의 열망으로 삼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밀턴의 사탄에게 '지옥'이 그러했듯, '기계'는 인간의 내면 그 자체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62). 20세기 초반에 미래주의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재구성하면서 "기술, 권력, 죽음을 미학화"(Bowler 775)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인간(성)을 추방하면서 그 자리에 거리낌 없이 기계(기술)를 들어 앉혔다. 그런 면에서 포스터의 「기계가 멈추다」는 마리네티를 비롯한 미래주의의 담론에서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기술 숭배가 초래할 가장 큰 위협을 생생하게 형상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란 공포와는 다른 차원에서, 미래주의자들처럼 인간이 기계가 되기를 '열망'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현대 독자에게 묻는다.

4. 나가며

자유주의 휴머니즘을 대변하는 포스터나 동시대의 로렌스, 심지어 인간(성)보다 기계를 우위에 둔 미래주의자들조차 '인간중심주의'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동신이 지적하듯, "테크노포비아와 테크노필리아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도 "양측 모두 궁극적으로 인간의 안녕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42).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점은, 「기계가 멈추다」 속 바쉬티와 쿠노의 대립이 리얼리즘의 섬세한 기법이 아닌 극단적 과장을 동반한 우화적 방식으로 형상화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포스터가 기계와 인간 사이의 이분법적 구도를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활용했음을 시사한다. 로렌스 역시 미래주의의 파괴적 속성에 부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으며, 당시 기계문명의 영향을 기계와 인간의 단순한 이분법으로만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포스터와 로렌스의 통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분법적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매몰되기보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강렬하게 표출되는 이들의 '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반에 이 두 모더니스트 작가를 사로잡은 것은 신체적 감각과 직접경험의 멸종이 인간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었고, 그러한 불안이 미래주의에 대한 비판적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신체적 직접경험의 멸종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포스터의 「기계가 멈추다」는 기술이 통념과 달리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당대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할 때 얼마나 폭력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이탈리아 미래주의는 기술이 인간사회의 다양성과 개인의 고유성을 망각하면서 파시즘과 결합하는 사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포스터의 단편은 미래주의자들이 파시즘과 결탁하기 훨씬 이전에 기계에 의한 다양성과 개인성의 파괴를 작품에서 형상화한다. 「기계가 멈추다」가 인간과 기술을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본다거나 '벌거벗은 몸'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기술사회의 본질을 단순화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고도로 발전된 기술사회

에서 인간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포스터의 통찰은 여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술과 인간의 통합이 현재처럼 맹렬하게 진행되기 훨씬 이전에 포스터는 이러한 통합 속에서 인간이 신체를 잃어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독자에게 묻는다. 기계사회에서 급격하게 신체를 잃어가는 바쉬티의 모습은 현재 정보사회에서 신체를 통한 직접경험의 기회를 점점 잃어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술과 인간을 분리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할수록 이러한 '탈신체화'(disembodied)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포스터 소설의 핵심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Notes

1) 피터 실(Peter Seele)은 포스터가 「기계가 멈추다」를 구상하고 집필했던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의 시대 상황을 기술 정보사회의 특징들—헨리 포드(Henry Ford)의 자동차 생산, 장거리 우편제도의 발달, 타자기의 발명, 대형선박과 운송수단의 발달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언급한다.

2) 로렌스는 1912년 3월에 유부녀였던 프리다를 처음 만났고, 5월에 프리다와 독일로 떠난다. 이후 1912년 9월부터 1914년 6월까지 1년 8개월 정도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로렌스는 주로 『무지개』(*The Rainbow,* 1915) 집필에 매달렸다. 이 시점에 마리네티를 비롯한 미래주의자들의 글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아 『무지개』와 이전 소설 『아들과 연인』의 인물 형상화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그에 대한 증거가 1914년 이탈리아를 떠나기 직전 에드워드 가넷(Edward Garnette)에게 보낸 편지에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3) 로렌스의 『길 잃은 소녀』는 1912년에 집필을 시작했으나 한동안 묵혀두었다가 1920년에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포스터의 초기 이탈리아 소설들과 비슷한 시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4) 모든 것을 포괄하고 흡수하는 기술에 대한 엘륄의 관점과 유사하게 권영희는 포스터의 「기계가 멈추다」가 비가시적이고 추상화된 근대 기술 문명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기계에 대한 인간의 예속이 심화할수록 인간의 신체적 역량이 훼손되는 것과 나란히 기계는 비가시적인 것으로 추상화하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체화된 존재성은 은폐된다. 이런 시각에서 「기계가 멈추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의 시대가 열리면서 기계의 사물성이 지워지는 경향을 선구적으로 통찰한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220). 이러한 주장은 포스터 소설의 화자가 '기계'가 보이지 않게 사회를 통제하며, 부분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어도 누구도 기계 전체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연결된다.

5) 이 편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인간적'(inhuman)이란 단어는 잔인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 감정이나 이성을 벗어난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6) A.W. 맥클라우드는 로렌스가 크로이던(Croydon)의 데이비드슨 로드 학교(Davidson Road School)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만난 동료이다. 로렌스의 초기 문학적 재능을 알아보고 지지해 주었으며, 로렌스가 나중에 그에게 많은 편지를 보낼 만큼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7) 로렌스는 '남성적' 원리를 "운동을 향한 의지"(will to movement)로 '여성적' 원리를 "관성을 향한 의지"(will to inertia)로 나누어 설명한다. 남성은 밖으로 나가 변화하고 움직이려는 성향이 특징이라면, 여성은 자기보존과 존재의 뿌리를 지키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로렌스에게 관성(inertia)은 '게으름'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으로 머물려는 힘'이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기 전까지 거대한 응축 상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근원을 유지하려는 의지이다.

8) D. H. Lawrence,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119-24쪽 참조. 로렌스의 텍스트에서 의식과 자의식의 과잉으로 구성된 '신경-두뇌적 자아'는 주로 추상적이고 이성적인 관념들을 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혈적 자아'는 본능, 직관, 몸의 실체로서 구체적인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으면서 인간의 존재를 외부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포스터의 「기계가 멈추다」에서 바쉬티는 '신경-두뇌적 자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9) 라이트 형제가 시험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한 것은 1903년이었고, 비행기가 상용화된 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를 전쟁에 활용하면서부터였다. 민간인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야 가능해졌다.

인 용 문 헌

권영희.「역병의 시대에 읽는 E. M. 포스터의「기계가 멈추다」」.『안과밖』51권, 2021, pp. 214-39.

이동신.『포스트휴머니즘의 세 흐름』. 갈무리, 2022.

Beauchamp, Gorman. “Technology in the Dystopian Novel.” *Modern Fiction Studies* vol. 32, no. 1, 1986, pp. 53-63.

Benjamin, Walter. “Experience and Poverty.” *Selected Writings*, vol. 2, pt. 2: 1931-1934, pp. 731-36.

Bowler, Anne. “Politics as Art: Italian Futurism and Fascism.” *Theory and Society,* vol. 20, 1991, pp. 763-94.

Carlyle, Thomas. *Selected Writings*. Edited by Alan Shelston, Penguin, 1980.

Ellul, Jacques. *The Technical Society*. Translated by John Wilkinson, Vintage Books, 1964.

Forster, E. M. “E. M. Forster on Lawrence’s art and ideas.” Obituary. *D. H. Lawrence: The Critical Heritage,* edited by R. P. Draper, Routledge, 1997, pp. 343-47.

_____. Introduction. *The Collected Tales of E. M. Forster,* Alfred A. Knopf, 1947.

_____. “The Machine Stops.” *The Eternal Moment and Other Stories,* A Harvest Book, 1928, pp. 3-37.

_____. “What I Believe.” *Two Cheers for Democracy,* Penguin Books, 1965, pp. 75-84.

Head, Dominic. “Forster and the Short Story.” *The Cambridge Companion to E. M. Forster,* edited by David Bradshaw, Cambridge UP, 2007, pp. 77-91.

Jonsson, Emelie. “‘Man is the Measure’: Forster’s Evolutionary Conundrum.” *Style,* vol. 46, no. 2, 2012, pp. 161-274.

Lawrence, D. H. *The Letters of D. H. Lawrence.* Vol. 1, edited by Harry T. Moore, Viking Press, 1962.

_____. *Phoenix: The Posthumous Papers*, 1936. Edited by Edward D. McDonald, Penguin Books, 1978.

_____. *The Selected Letters of D. H. Lawrence*. Edited by James Boulton, Cambridge UP, 1979.

_____.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1923. Penguin Books, 1977.

March-Russell, Paul. "'Imagine, If You Can': Love, Time and the Impossibility of Utopia in E. M. Forster's 'The Machine Stops.'" *Critical Survey,* vol. 17, no. 1, 2005, pp. 56-71.

Marinetti, F. T. "The Founding and Manifesto of Futurism." 1909. *Futurism: An Anthology,* edited by Lawrence Rainey, Yale UP, 2009, pp. 49-53.

_____. "Multiplied Man and The Reign of The Machine." 1911. *Futurism: An Anthology,* edited by Lawrence Rainey, Yale UP, 2009, pp. 89-92.

_____. "The New Religion-Morality of Speed." 1916. *Futurism: An Anthology,* edited by Lawrence Rainey, Yale UP, 2009, pp. 224-29.

Seabury, Marcia. "Images of a Networked Society: E. M. Forster's 'The Machine Stops.'" *Studies in Short Fiction,* vol. 34, 1997, pp. 61-71.

Seegert, Alf. "Technology and the Fleshly Interface in Forster's 'The Machine Stops': An Ecocritical Appraisal of a One-Hundred Year Old Future." *The Journal of Ecocriticism,* vol. 2, no. 1, 2010, pp. 33-54.

Seele, Peter. "The Long Shadow of Fatalism: a Philosophical Speculation on Forster's 'The Machine Stops'(1909) on the Disintegration of Technologically Advanced Societies Back Then and Today." *Philosophy of Management,* vol. 20, 2021, pp. 431-39.

Tereszewski, Marcin. "Dystopian Space in E. M. Forster's 'The Machine Stops.'"

Language and Literary Studies of Warsaw, vol. 10, 2020, pp. 225-36.

Van Boheemen, Christine. "Joyce's Sublime Body: Trauma, Textuality, and Subjectivity." *Joycean Cultures/Culturing Joyces*, edited by Vincent Cheng et al., U of Delaware P, 1998, pp. 23-43.

Vassallo, Peter. "E. M. Forster, John Ruskin and the 'pernicious charm' of Italy." *The Journal of Anglo-Italian Studies,* vol. 10, 2009, pp. 125-33.

Abstract

Italian Futurism and Modernist Anxiety over Machine Civilization: The Cases of E. M. Forster and D. H. Lawrence

Eunyoung O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how British modernist writers, E. M. Forster and D. H. Lawrence, critiqued Italian Futurism and its glorification of machine civilization. While F. T. Marinetti celebrated speed, industrial power, and the destructive beauty of the machine, Forster and Lawrence saw these advances as a threat to human nature and organic life. Analyzing Forster's "The Machine Stops," this paper explores his warning against a 'mediated' life atrophied by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By contrasting Futurist optimism with modernist anxiety, it demonstrates that these dystopian visions reflect ethical inquiries into dehumanization and the loss of bodily presence rather than simple technophobia. Ultimately, these critiques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our increasingly disembodied digital age.

Keywords: Italian Futurism, machine civilization, modernist anxiety, technology, "The Machine Stops," E. M. Forster, D. H. Lawrence

논문접수일: 2026.9.15
심사완료일: 2026.9.30
게재확정일: 2026.10.08

이름: 오은영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이메일: young_oh@naver.com